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7월 14일(주일) 제1500호

땅끝을 향한 담대한 증인들!



사진은 지난해 레바논 아웃리치

여름 아웃리치, 해외 2,554명, 국내 5,623명 참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 안전 관리 수칙 철저히 지키기

더 뜨겁고, 더 은혜로운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7월과 8월 이어진다. 해외 146개 팀 2,554명, 국내 231개 팀 5,623명이 참가한다(7월 12일 기준).

이번 주(7월 13~20일) 아웃리치를 떠나는 팀은 21개다. S브릿지공동체 대만과 캄보디아, 브릿지33+공동체 문경, 영등포구로공동체 필리핀, 분당A공동체 몽골, 양재A공동체 강원

도, 여호수아청년부 대만, 카자흐스탄, 안산, SNS청년부 몽골, 태국, J4U청년부 스리랑카, 튀르키예, CHPLUS청년부 베트남, 허브대학부 태국, 제주도, 요셉청년부 일본, W청년부 일본, 길청년부 강원, 수원 대청 홍콩, 강동 대청 계룡, 인천 대청 인도아웃리치를 간다. 각 사역지에서 선교사 위로, 어린이 사역, 시설 보수, 마을 잔치, 노방전도 등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폭염과 갑작스

러운 폭우, 식중독, 감염병 등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손 씻기 생활화, 조리기구 소독 관리, 기상 상황 수시 확인,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등 여름철 안전 관리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미디어본부에서는 2024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 '찍자, 아웃리치!'를 개최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제작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4)하거나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로 보내면 된다. 1등 50만 원(1팀), 2등 30만 원(3팀), 3등 10만 원(5팀) 상당 배달앱 상품권, 위트상(5명)과 은혜상(5명)에게는 카페 상품권을 준다.

〈온누리신문〉에서는 2024 여름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남양주온누리교회 입당예배

7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본당

남양주온누리교회 입당예배를 7월 21일(일) 오후 2시 남양주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새로 건축한 남양주온누리교회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20-14(다산동 6177번지)번지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입당예배는 찬양, 기도, 영상, 특순, 성도의 교제, 성경봉독, 설교, 건축결과보고, 감사패 증정, 감사의 말씀,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온누리장로합창단에서 특순을 한다.

남양주온누리교회는 2004년 11월 7일 국내 다섯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다음세대를 세우며,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을 돌보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의: 031-565-9686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714 기도대성회’ 7월 14일 오후 7시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 9월 28일까지

7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른다. 7월 14일(일) 오후 7시 13개 지역거점 교회에서 한국 교회와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714 기도대성회’가 막 오른다. 13개 지역거점 교회는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 성민교회(이해영 목사), 신길교회(이기용 목사), 일산교회(윤상덕 목사), 용인제일교회(임병선 목사),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 늘사랑침례교회(송호철 목사), 남군산교회(이신사 목사), 광주광천교회(이양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제주성안교회(류정길 목사) 등이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민교회(이해영 목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열리는 714 기도대성회에 참석한다.

제4차 로잔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참가자 한 끼 후원’과 한국 교회와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 기도하는 ‘매일 기도’는 9월 28일(토)까지 이어진다. ‘참가자 한 끼 후원’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31401-04-303854(사단법인 한국로잔)으로 한 끼 식사 비용(2만 원)을 보내면 된다.

‘매일 기도’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나 아노키(Anoki) 기도 앱에 올라오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면 된다.

7월 13일(토)에는 신길교회에서 ‘한국로잔 청년 콘퍼런스’(이하 청년 콘퍼런스)가 있었다.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를 주제로 열린 청년 콘퍼런스는 한국 청년들에게 로잔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선교 동참을 독려하는 시간이었다.

제4차 로잔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막 오른다 <관련 기사 5면>.

/ 홍하영 기자

기독교 OTT ‘퐁당’ 2.0 첫 선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퐁당’ 20이 7월 16일(화) 정오(12시) 첫선을 보인다. 기독교 OTT 퐁당 2.0은 지난 3년 동안의 데이터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리뉴얼했다. 사용자 중심의 UI/UX 개편, CGN 4개 라이브 채널(한국, 미주, 일본, 중문) 개설, 정주행 채널 개설, 클래스 기능 개편 등을 했다. 기독교 OTT ‘퐁당’ 2.0 리뉴얼을 위한 시스템 교체 및 점검을 7월 15일(월) 오후 8시부터 7월 16일(화) 정오(12시)까지 한다. 문의: fondant@cgmail.net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7월 비전헌금, 한국창조과학회 후원

7월 13-14일 봉헌하는 7월 비전헌금은 ‘한국창조과학회’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1981년 1월 31일 설립됐다. 故 김영길 장로(한동대학교 초대 총장)가 초대 회장으로 섬겼다. 현재는 하주헌 장로(이촌공동체)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학술, 교육, 출판, 미디어, 탐사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전달하고 있다<관련 기사 8면>.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고난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이 임한 것입니다(마 5:11~12).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은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기쁘게 감당하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 했습니다”(행 13:52).

그들은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합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우리 민족,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선교적 확산성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어느 정도 준비된 이들이기에 복음 전파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반발과 핍박도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복음을 들었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고 대적하며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믿는 사람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내쫓고, 심지어 죽이려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먼저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할 이들이 더 완

죽도록 돌에 맞고도

사도행전 14:8~20

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3절).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속히 떠나려는 게 아니라 가능한 오래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3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담대함은 순수함과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수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들과 하나님이 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을 또다시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인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남달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남달리 사모하며,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체험이 바로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수천 명이 있어도 남달리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남달리 거부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달리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귀가 열리는 것이 성령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치유와 회복도 일어납니다. 마음과 정신의 회복이 일어나고, 때로는 육신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달리 귀 기울여 듣는 한 장애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전설로 믿고 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오해했습니다(11~13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11~13절).

그들은 전설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신이 사람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떠받들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며 우상숭배를 막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담대하게 자신을 내던지며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속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잘못된 원인은 이 한 가지 원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사람들이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동반자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결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 예배, 찬양이 하나님 되심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충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어도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여전히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 외쳤습니다(14~15절).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면 옷을 찢으며 분

“그들은 죽도록 돌에 맞고도 다시 일어나 기뻐하며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과 핍박도 기뻐하며, 이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노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떠받들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옷을 찢어야 할 순간은 스스로를 떠받드는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행동을 말릴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설교와 루스드라에서의 설교

〈사도행전〉 15~17절을 보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와 루스드라에서의 설교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본 비디시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구약 역사를 요약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유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중에 맞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아닙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증거해야 하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서는 성경을 인용할 수 있지만,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쓴 〈영원한 사람〉(The Everlasting M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진화론이 막 등장하기 시작할 때 쓴 것 같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에 들어가 보면 벽화가 있습니다. 사슴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그림을 그립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뿐입

니다. 고대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현대 사람은 못 그립니까? 아닙니다. 현대에도 석기 시대 사람보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있고, 고대인이라도 그림의 은사가 있으면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기 시대 사람도 사람이고, 이 시대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화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유일하심을 보여주며,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 단계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으로부터 시작하고,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된 인간에게 이르러서 셋째, 진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룬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비디시아 안디옥에서는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대상에 따라 다른 설교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상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탁월함으로 사역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사역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주고 “당신이 앞서 가라. 내가 뒤따라가겠다”는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믿음의 문이 열렸는지 보고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기적과 변증, 전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반대자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모함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여러 모함과 음모로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맞아 죽을 만큼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를 전하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옳은 지도자를 싫어하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지도자를 도리어 인정하지 않고, 자신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지도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감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어둠에 가까운 지도자를 지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올바른 진리를 전했지만, 그들을 돌로 쳤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을 던져서 시체인줄 알고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때 살아난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돌을 맞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존하신 것입니다. 죽도록 돌에 맞고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사건을 언급합니다(고후 11:24~25).

바울의 많은 고난 중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사역지를 ‘더베’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더베에서는 핍박이 없었고, 오랫동안 머물며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사역을 중단했다면 더베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파송을 받은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빨리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 다. 배를 타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사역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는 코스를 잡습니 다. 죽을 고생을 했으면 빨리 돌아가고 싶었

을 텐데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서 간 이유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21~22절).

많은 새신자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서 그 힘들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장로와 리더십, 성도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뒤에 비시디아, 밤벨리아, 버가, 앓달리아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년에 걸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른바 ‘선교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은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27~28절).

보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이고, 둘째,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입니다. 그들이 죽도록 고생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믿음의 문이 열렸는지를 보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한 이야기는 먼 훗날 바울이 죽음을 앞둔 때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딤후 3:11~12).

바울과 바나바는 죽도록 돌에 맞고도 다시 일어나 기뻐하며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복, 고난과 핍박도 기뻐하며, 이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핍박과 죽음조차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귀한 삶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창조질서

젠더이념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지식

미국이나 유럽으로 자녀들을 유학시킨 가정 중에 “우리 아이가 성전환을 고민하는데 어쩌면 좋아?”, “기숙사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가 성전환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 “단체여행에 동성애자 룸메이트와 같은 침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보내야 하는가?” 등의 구체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젠더주의가 큰 권력이 되었다. 입학, 취업, 승진, 기관의 대표가 되는 모든 일에 성소수자인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환경에서 교육받아 온 자녀들에게 사회 정의, 즉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우대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교육환경도 급격히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 환경에서 교육받아 온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정의는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는 진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지식이 필요하다.

첫째, 생물학적으로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젠더주의자가 말하는 몇십 개, 몇백 개의 젠더가 있다는 것은 생각일 뿐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의 결정은 수정할 때 성염색체가 XX인가, XY인가에 의해 결정되며 이후 변할 수 없다. 성인 육체의 100조 개에 가까운 세포들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DNA를 똑같이 복제해서 2개의 세포로 분열하기 때문에 모두

같은 유전정보를 가지며, 성염색체 정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성은 남녀 양성밖에 없다.

둘째, 성전환은 불가능하다. 반대 성호르몬을 계속 투여하거나 생식기 성형수술을 통해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기능적 전환은 불가능하다. 반대 성호르몬으로 각 세포의 성염색체가 가진 정보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반대 성호르몬 요법을 끊으면 대부분 원상으로 복귀한다. 성전환 치료를 먼저 시작했던 영국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치료를 시행해 오던 런던의 ‘타비스톡 클리닉’을 2023년 폐쇄했고, 정신과 상담 치료를 우선하도록 수정했다. 미국에서도 젠더확인치료(gender affirming therapy)를 권유한 의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청구되고 있다.

셋째, 젠더확인치료를 거절하면 자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거짓이다. 오히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자살 위험이 크다. 성전환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살할 거라고 젠더주의자는 부모들을 협박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없다. 반대로 젠더확인치료 받은 사람들을 장기간 추적한 스웨덴의 연구에서 그들이 일반인보다 수명이 짧고, 자살 위험이 19배 이상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성전환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결국 기능적 성전환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상 복귀도 불가능함을 나중에 알게 될 때

더 큰 절망감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젠더확인치료가 오히려 수명을 줄이고,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게 진실이다.

넷째, 젠더확인치료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젠더주의에 영향을 받은 교육과 미디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젠더주의를 앞세운 학생인권조례가 10년 이상 공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성과 관련된 모든 것에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함으로써 아이들의 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동성애나 젠더주의가 좋은 거라고 공교육에서 미화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 내용의 자료들을 양산해 SNS를 통해서 흠뻑리고 있다. 우리는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진보라 미화할 수 없다. 이는 분명한 윤리적 퇴보이며,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젠더확인치료를 조장하는 배후에 이익을 보는 여러 세력이 있다. 젠더주의의 배후에는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 첫째, 급진적, 자기중심적, 선정적 자아관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 파괴라는 문화의 폭풍을 일으키며, ‘클릭’과 ‘좋아요’로 돈을 버는 미디어 집단이다. 둘째, 젠더이념을 현실에서 실현하라는 이념의 폭풍을 일으켜 집권하려는 정치 집단이다. 셋째, 반대 성호르몬 생산 판매와 성전환 수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약 집단이다. 이익을 쫓는 강력한 집단들

에 의해 취약한 청소년들을 쉽게 착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주변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칠 것인가? 취약한 청소년들과 그 배후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 어려움에 빠진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 정체성과 주장이 약하고, 착해서 남에게 잘 휘둘리는 공통점이 있다. 자녀들이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강도 만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줄 것을 권고해야 한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조종하는 배후 집단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단계까지 이끄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말씀과 세상을 분별하는 힘이 아직 부족하다면 그들과의 접촉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도록 전심으로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를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이끌 수 있다고 성경(대상 12:32)은 말한다.



류현모 교수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다시 법정으로 끌려간 잭 필립스

지난달 케이크 아티스트이자 사업가 잭 필립스가 다시 법정에 섰다.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12년 동안 법정 공방을 당했다. 한 성소수자 활동가가 잭 필립스가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혀 왔다. 잭은 2012년 동성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맞춤 제작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 의해 처음 법정에 섰다. 잭은 자신의 가게에서 다른 제품은 무엇이든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뿐 아니라 그 커플의 주문을 기꺼이 받아줄 다른 케이크 가게를 추천해 주었다. 그런데도 그 커플은 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했다. 이 사건은 미국 대법원에서 7:2로 잭이 승소하는 것으로 끝났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가 잭의 신앙에 대해 ‘명백하고 용납할 수 없는 적대감’을 표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환’을 축하하는 케이크 맞춤 제작에 대한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잭을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자유수호연합이 잭을 대신해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으로 잭의 문제는 끝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성전환 케이크 맞춤 제작을 요청했던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점점 기괴하고 변태적인 디자인의 케이크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했다. 그렇게 잭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끝에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는 그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하급심에서 잭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 자유수호연합은 이 판결에 대해서도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필자는 이달 초 열렸던 구두 변론과 그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잭과 그의 상대방 사이의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14년 동안의 시련과 지난 몇 년 동안 ‘잭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겠다’며 이에 전념한 한 남성의 끈질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잭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상대방인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그렇지 않다. 법적 재판을 받는 동안 잭은 우리의 신념에 점점 더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해고당하는 신학’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잭은 거짓에 따라 살기를 거부했다. 그가 처음 이 운명적인 결심을 했을 때만 해도 법정 싸움이 10년 넘게 지속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냥 케이크를 굽는 게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잭은 자신의 창의적인 재능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기를 거부한다.

둘째, 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콜로라도 대법원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잭의 기쁨과 자신감은 수년에 걸쳐 더욱 커졌다. 그의 삶은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십시오”(약 1:2)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 주는 본보기다.

셋째, 잭과 그의 가족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 그의 신실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자유수호연합 회장이자 법률 고문인 크리스틴 와고너는 최근 <월드(World)>지에서 지난해부터 전 세계가 주목해온 이야기 ‘소말리아 출신의 인권 운동가이자 작가, 팟캐스트 진행자이며, 신무신론자 운동의 전 지도자였던 아얀 히르시 알리’가 신앙을 찾게 된 여정에서 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와고너의 글이다.

“무엇이 그녀를 이 불관용의 물결에 대해 각성하게 했는가? 그녀는 ‘케이크를 굽는 이야기였다’라고 말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빵사’로 묘사했던 잭 필립스, 바로 그 사람 덕분이다.”

물론 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제빵사가 아니다. 노숙자 쉼터 관리자부터 그래픽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잭의 이야기는 수많은 크리스천이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 영감을 주었다. 알래스카의 여성 전용 노숙자 쉼터의 매니저 셰리 로리는 “제빵사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여성들에게 침입하려는 남성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용기를 얻었다. 와고너는 이렇게 말했다.

“잭의 모범은 수많은 크리스천이 어떤 역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독려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의미한 바가 이런 종류의 것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담당한 말을 반복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사실이다. 잭 필립스가 그 증거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자렛 헤이든(콜슨 센터 브레이크포인트 기자 종교학 석사(前)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원문: breakpoint(20240702)

로잔운동 기획시리즈

로잔대회와 온누리교회

로잔운동과 하용조 목사 이야기

노규석 목사
(안산M센터)

2024년 9월 22~28일,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것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한다.

1985년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26년 동안 목회한故 하용조

목사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주제로 자주 설교했다. 그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다. 성경은 ‘주님께 오라’와 ‘땅끝까지 가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란 개인적으로는 개인 전도,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사회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세계적으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다”라고 정의했다. 이는 설교나 구호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선교가 중심이 된 교회를 추구했고, 교파 중심주의 전통적인 교회 모델과는 다른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목회를 온누리교회를 통해 구현했다.故 하용조 목사는 책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선교 하시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이 세계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선교 명령이요, 지상 명령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왜 돈을 열심히 벌까?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남아 있는 우리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감당해야 할 목적과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모두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그는 온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해외 타문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mission focused church),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존재로 있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총체적 선교(wholistic mission)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실현하고자 시도했다. 2015년 KGMLF(Korea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에서 이재훈 목사는 “하용조 목사를 통해 온누리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한국형 선교 교회(Korean mission church)가 탄생했다”고 정의했다.

로잔 신학이 하용조 목사의 목회철학과 선교사역에 미친 영향

故 하용조 목사는 1980~1983년 영국에서 머무는 동안, WEC 국제선교회에서 선교훈련을 받았고, 존 스토틀 목사가 가르치던 런던 인스티튜트(London Institute)에서 공부했다. 하용조 목사는 존 스토틀 목사와 함께 지냈던 시절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곳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목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존 스토틀를 통해 배웠다고 했다. 또한 존 스토틀가 담임목사로 섬기던 올 소울스 교회(All Souls church)와 런던 인스티튜트에서 목회 현장의 팀워크를 배웠다고 했다. 이 경험을 살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서원이 함께하는 처치(Church)와 파라처치(Para-Church)의 조화를 이루는 선교 협력적 모델을 시도했다. 그는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하용조 목사와 온누리교회가 로잔 신학을 통해 선교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는 영국에서 학문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사실 신학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잘 믿었는데, 신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학의 많은 방법론들과 사상들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주 그럴듯해 보인 것이다. 신학자들을 공부해 보면 그럴듯한데, 문제는 이들의 신학 이론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많은 합리적인 이론들 속에서 예수님은 점점 미라처럼 느껴졌다. 감격스럽게 만난 예수님이 자꾸만 사라졌다. 그런데 영국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까지 내가 학문적으로 배운 것만이 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로 발견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복음주의적인 신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문적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많은 학자들과 경건한 분들을 만나면서 학문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故 하용조 목사가 영국에서 존 스토틀 목사를 비롯하여 데니스 레인 선교사, 짐 그레함 목사 등을 통해 접했던 ‘복음주의적인 신학’은 바로 1974년 로잔언약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는 존 스토틀 목사를 통해 복음전도에 우선순

위를 두면서도 ‘복음, 교회 그리고 세상’의 관계와 균형 잡힌 선교신학을 추구했던 로잔신학을 배웠던 것이다. 이후 그가 1985년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복음전도의 최우선성과 함께 ‘복음, 교회 그리고 세상’이라는 세 단어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2011년 7월 27일, 영국에서 존 스토틀 목사(1921~2011)가 별세했고, 6일 뒤 8월 2일 한국에서는 하용조 목사(1946~2011)가 별세했다. 영국 성공회교회 존 스토틀 목사와 한국 장로교회 하용조 목사, 두 사람 모두 개인의 회심, 교회 중심의 선교와 전도의 우선성, 대속론적 십자가 구원 이해를 강조한 복음주의자들이었다. 영적 스승과 제자 같은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사명을 마치고, 그들이 사랑했던 하나님께로 떠난 것이다. 특히 하용조 목사는 2011년 온누리교회 표어로 정했던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무거운 사명과 암 투병과 신장 투석이라는 육체의

1989년 7월 두란노서원 <목회와 신학>을 창간했고, 10월호 특집기사로 제2차 로잔대회에 다녀온 조종남 목사, 김선도 목사, 방선기 목사, 전재욱 선교사, 고직한 선교사의 글들을 실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로잔운동과 로잔정신을 소개했다. 하용조 목사는 1997년 한국의 IMF 사태 이후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인식했고, 그 이후 온누리교회는 아버지학교 운동, 온누리복지재단(1999년), 온누리M센터(2005년)를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다. 이런 하용조 목사의 목회 철학은 2000년대 온누리교회의 표어를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교회’ (2002년),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 (2003년), ‘온 세상을 위한 교회’ (2005년), ‘온 세상을 향한 교회’ (2006년),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2007년), ‘세상에 평화를 심는 교회’ (2008년)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로잔 신학의 중심 주제인 ‘복음, 교회 그리고 세상’이라는 핵심 주제가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선교사역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故 하용조 목사는 로잔언약에서 강조한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 즉 총체적 선교를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시도했다. 전통적 해외 선교를 비롯한 평신도 선교 운동, 국내 이주민 선교, 금호 사역과 다양한 사회선교와 재난구호 사역, 탈북자와 난민 사역, 교육 선교, CGN 미디어 선교, 일본 러브소타나를 비롯한 문화선교, 군선교 등 다양한 선교 사역들과 폭넓은 사회참여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러한 온누리교회의 사역들은 지난 50년간 로잔대회들에서 다루어지고 토론했었던 다양한 선교적 이슈들이 지역사회와 목회 현장에서 실행된 ‘선교적 교회 모델’의 발현이라 생각한다.

2011년 온누리교회의 2대 위임목사로 취임한 이재훈 목사를 통해 온누리교회의 융합 선교와 국제적 협력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더불어 2017년부터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으로 섬기는 이재훈 목사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적 섬김은 이번 제4차 로잔대회의 한국 개최를 가능케 했고,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 아시아 교회를 넘어서서 세계 교회들과의 선교적 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제4차 로잔대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로잔운동 50년과 온누리교회 40년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故 하용조 목사와 온누리교회가 로잔 신학을 통해 선교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더욱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로잔대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을 완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질고를 내려놓고,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로 보냄을 받았다.

하용조 목사와 로잔대회

故 하용조 목사는 1차 로잔대회가 열렸던 1974년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이었고, 2차 대회가 열렸던 1989년에는 교회를 개척한 지 4년 된 젊은 목회자였기에 로잔대회에 초청을 받을만한 선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못했다. 2010년 3차 대회에는 병환으로 인해 참석할 수 없었다. 비록 하용조 목사가 제1, 2, 3차 로잔대회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과 온누리교회의 선교사역에는 로잔 정신과 로잔 신학이 새겨져 있고, 로잔언약을 실체화한 현장이었다.

1974년 로잔언약은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용조 목사는 제2차 로잔대회가 열린

이 시대 부모들에게

자녀의 다름을 인정하기



채경선 교수
(성산대학교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많은 부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왜 우리 아이는 남들과 이렇게 다를까?’다. 왜 남들처럼 앞전하지도 않고,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주장과 고집이 센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고민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는 부모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부모는 아이의 방향성 혹은 속도감이 교과서에 나온 정답처럼 늘 같아야 한다고 오해를 범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왜 그것도 못 하니?”라고 나무랄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 중에 ‘기질’이라는 단어가 있다. 기질은 서로 다른 일관된 특성이다. 막 세상에 나온 영아들에게서도 기질이 발견된다. 영아들의 기질을 연구한 뉴욕의 종단 연구를 하나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이들을 세 개의 기질로 나눈다. 전체 연구대상 40%를 차지하는 아이들은 순한 기질을 가졌다. 행복하게 잠도 잘 자고, 혼자서도 잘 놀기도 한다. 큰소리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다.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다. 전체 연구대상 중에서 10%를 차지한다. 이 아이들은 쉽게 울고, 보챈다. 밤에 잠이 들려면 엄마가 엄청난 에너지를 투여해야 한다. 15%를 차지하는 아이들은 느린 기질을 가졌다. 이 아이들은 기회가 생기면 흥미를 보이는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딘 반응을 보인다. 나머지 35% 아이들은 앞서 살펴본 기질들을 복합적으로 가졌다. 이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다른 기질을 가졌다.

부천 샤이닝키즈 참가자 소감

안녕하세요. 부천온누리교회 초등1부 최규원이예요. 제가 10주 동안 샤이닝키즈에서 배운 일곱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 말씀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저를 지켜보시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항상 기쁘고 힘이 나요.

둘째, 말씀 암송을 통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매일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깐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셋째,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알

기질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질 연구가 진행된 후로는 자녀의 기질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나는 기질을 이야기할 때 흔히 와인잔과 똑배기 예시를 든다. 와인잔은 어떤가? 온도에 정말 예민하다. 얇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는 깨지고 만다. 그런데 와인잔이 가지는 아주 멋진 모습이 있다. 예쁜 카테일을 부었을 때 연두색은 연두색대로, 주황색은 주황색대로, 진분홍색은 진분홍색대로 아주 투명하게 보여준다. 반면 똑배기는 어떤가? 똑배기는 100도가 넘는 끓는 물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쉬이 판단하지 않고,
쉬이 결정하지 않고, 쉬이 낙담하지 않고,
자녀의 다름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기대한다.”**

담아도 멀쩡하다. 설거지할 때 막 다뤄도 쉽게 깨지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가졌다. 하지만 똑배기는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릇이다. 누구는 와인잔으로, 누구는 똑배기로 만들어져서 각자 끓는 점과 발화점이 다르다. 내구성이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도 다르다. 와인잔과 똑배기는 각자의 특징에 맞게 온전히 사용된다. 그래서 각기 다른 쓰임을 하는 그릇을 두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녀들에게 “옆집 누구는 이랬다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진 독특성을 해하는 말이다. 죄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창조주 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

이 되려고 하다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엄연히 다르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집에 아이가 이때 태어났다면’, ‘이때 우리 아이가 걸었다면’, ‘이때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갔다면’, ‘우리 아이가 이때 취직이 되었다면’ 등의 생각을 종종 한다. 우리의 기준에 맞춰 자녀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불평한다. 그 안에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아야 한다는 오만함이 숨어 있다. 수많은 착각 속에 숨어 있는 그 시간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정말 만만치 않다. 기다림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다.

자녀의 성장 속도,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틀, 세상에 반응하는 민감도나 발화의 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걸음마

를, 수없이 넘어짐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언젠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성품을 훈련하게 한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다. 잎이 지는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쉬이 판단하지 않고, 쉬이 결정하지 않고, 쉬이 낙담하지 않고, 자녀의 다름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부모에게 2편 부모, 자녀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 선크림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7월 8일 본문 <열왕기하> 8장 16~20절



1. 남유다 여호람 왕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왕하 8:18)

① 나중에 더 큰 벌을 주시기 위해서 ②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③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④ 남유다에 의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2. 하나님이 유다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회개의기도를 드려보세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일곱 가지 배움!

게 되었어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넷째, 제가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더 즐거워졌어요.

다섯째, 하나님이 말씀 암송하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 온 마음과 영혼을 기억해주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섯째, 샤이닝키즈 10주 동안 저와 친구들

을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죄의 유혹도 이기게 해주시고, 큰 산처럼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일곱째, 하루를 अच्छ게 보내고 싶다고 기도했었는데, 샤이닝키즈를 통해 말씀 암송으로 하루를 अच्छ게 보내게 해주셨어요. 제 기도에도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최규원 학생
(부천온누리교회
초등1부)

“그 아이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NGO 더멋진세상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 지원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7월 31일까지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프리카 모리타니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무려 40%에 육박한다. 그중에서 23.7%가 영양결핍으로 목숨을 잃는다. NGO 더멋진세상은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지난 2022년부터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 지원 캠페인’을 매해 이어오고 있다. 영양불균형 아동, 빈민 아동 등에게 식품키트, 고단백 영양 가루, 간식 등을 제공하는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 지원 캠페인’에 동참할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다리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제야 숨을 쉴 것 같아요. 살아갈 소망이 생겼어요!”

올해 18살 빈타(Binta)의 고백이다. ‘낭랑 18세’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 나이 청년들은 바라만 봐도 싱그럽고, 푸릇푸릇하다. 그런데 열여덟 빈타는 그 예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말라 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열여덟 소녀 빈타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찍 결혼했다. 빈타의 가족은 구걸해서 먹고 살았다.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빈타의 결혼을 결정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혼당하고, 다시 집으로 왔다. 이제 34개월 된 아들 이브라힘 하숨(Ibrahim Hachoum)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빈타의 아들 이브라힘은 항문폐쇄증(출생할 때부터 항문이 없거나 항문이 괄약근 안에 위치하지 못한 상태)을 안고 태어났다. 항문폐쇄증은 선천성질환이다.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당장 아이에게 인공항문 수술을 해줘야 하는 막대한 상황에 그녀의 남편이 이혼을 통보했다. 아픈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남편은 빈타와 이브라힘을 두고 떠나버렸다. 빈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픈 아이를 품에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타의 친정엄마 제이나바는 돌아온 딸을 보고 눈물을 쏟았다.

“입 하나를 줄이고자 어린 빈타를 시집 보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린 딸을 시집보내면서 ‘이제 입 하나 덜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못난 어미 때문인지 빈타가 아픈 아기를 출산하고,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아픈 아기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빈타를 보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 미안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현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브라힘의 수술비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NGO 더멋진세상을 만났다!**

빈타의 가족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만 같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 갇힌 기분이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바로 그때, NGO 더멋진세상을 만났다. NGO 더멋진세상이 빈타의 가정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장 먼저 이브라힘의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으로 도움을 받은 아이사타와 하비(왼쪽), NGO 더멋진세상이 영양실조 아동 가정에 영양 지원 패키지를 전달하고 있다(오른쪽).

이브라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항문 폐쇄증과 더불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브라힘의 상태를 본 NGO 더멋진 세상 모리타니 지부장이 “이브라힘은 꺼져가는 불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NGO 더멋진세상은 빈타의 가정에 지역보건 요원을 배치했다. 주기적으로 이브라힘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 후원금으로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식품키트와 약품도 제공했다. 인공항문 수술 및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에 참여해준 후원자들 덕분에 빈타 가족의 가장 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었다. 빈타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우리 가정에게 큰 선물입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결혼하느라 그만둔 학교도 다시 다니고 싶고, 미용 기술도 배우고 싶습니다. 희망과 소망, 꿈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을 얻은 또 다른 가정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고 희망을 얻은 또 다른 가정이 있다. 엄마 아이사타(Aissata)와 딸 하비(Habi)다. 하비는 이제 막 돌을 넘긴 생후 15개월 된 아기다. 하비는 엄마 아이사타 뱃속에서부터 영양이 부족했던 탓에 중증 영양실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매우 연약하게 태어난 하비는 병원 치료가 필요했는데, 하비의 아빠가 거절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정을 주지 말라”는 말도 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두 하비를 곧

죽을 아이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 아이사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주변에 묻고 또 물어서 NGO 더멋진세상이 운영하는 모리타니 영양센터를 찾아왔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이사타의 간절한 마음에 공감했다.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엄마를 따뜻하게 위로했다. 엄마 아이사타는 그 어디에서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받지 못한 위로를 NGO 더멋진세상에게 받았다.

NGO 더멋진세상은 하비의 중증 영양실조를 치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고단백 영양식 플립피넛트와 약을 제공하고, 하비의 상태를 계속 점검했다. 지속적인 치료 덕분에 아위었던 하비의 얼굴에 동그랗고 통통한 볼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이사타의 가정을 방문해서 식품키트도 전달하고 있다. 덕분에 아이사타 가정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엄마 아이사타도 미소를 되찾았다.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약과 영양식을 제공해 주셔서 하비가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을 주신 NGO 더멋진세상과 후원자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비가 건강하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아동들의 건강과 삶 책임진다

NGO 더멋진세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서 빈타와 이브라힘, 아이사타와 하비 가정 외에도 수많은 영양실조 영유아 가정을 돕고 있다. 2022년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 후원금(2천4백여 만 원)으로 영양실조 아동 450명을 지원했다. 그중에는 6개월 된 시각장애인 아동이자 영양실조 아동 마리아姆(Marieme Maouloud)과



중증 영양실조를 앓던 생후 7개월 된 함멧(Mohamed Abdallahi), 엄마의 유방 과사로 젖을 먹을 수 없는 이브라힘 세이두(Ibrahim Saidou), 정신질환을 앓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사생아 이브라힘 트라올레(Ibrahim Traore)도 있었다. 각자의 사정으로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생명을 위협받던 아이들이 NGO 더멋진세상의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 지원 캠페인’을 통해 새 삶을 선물 받았다.

지난해에는 모리타니 엘미나시에 거주하는 아동 14,62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6~59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영양실조 아동 231명(중증도 205명, 심각 26명)을 발견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모리타니 영양 불균형 아동 가정 150가구, 다르비다 유치원생 220명, 조케마를 유치원생 80명, 엘부라트 초등학교생 300명을 지원했다.

NGO 더멋진세상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이 아동들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고 있다. 영양 상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다시 꿈을 꾸며 살도록 돕고 있다. 모리타니 영양실조 아동들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

NGO 더멋진세상이 영양실조 아동 가정에 지원하는 영양지원 패키지에는 영양 가루(\$22)와 분유(\$24)가 들어 있다. 1인 기준으로 한 달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 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나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6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 더멋진 세상



창조는 진리이며, 복음의 근원!

7월 13~14일 7월 비전헌금 ‘한국창조과학회’ 후원



하주헌 장로
(이춘공동체, 한국창조과학회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아빠,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어느 날 유레카를 외치며 한 말이다. 아이는 걷기 시작하면서 온누리교회를 다녔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창조과학 사역을 하

는 나를 따라 수많은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었다. 그런데 중학교 생물 수업을 고작 몇 시간 배우고, 진화론이 사실인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아이의 얼굴에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음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날 이 아이의 심령에는 어떤 상처가 났을까?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내 모습이 아들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보이기를 원했는데, 그날 내 모습은 어떻게 비쳤을까?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며 진화론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다. 우주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등 학문통합적으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논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진화론의 오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진화론은 우주와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거부하는 근거가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진화론의 치명적 오류

“물고기는 왜 물 밖으로 나와야 할까?”

이 질문에 관한 최신 진화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진화론의 치명적 오류를 알아보자. 미국의 한 연구그룹이 2016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과학 학술지(Nature)에 ‘손발가락은 지느러미와 공통 발생 역사를 가진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서술을 시작한다.

“물고기 지느러미가 동물의 발가락으로 변해가는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작업은 생물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진화 과정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증명해 보려는 시도인데, 놀랍게도 결론이 먼저 나뉘었다는 논리의 중대한 모순을 안고 출발한다. 논문의 핵심 내용은 동물의 손발가락 뼈 발생에 필요한 유전자와 비슷한 유전자가 물고기에게도 발견되는데, 이 비슷한 유전자가 지느러미 뼈 발생에도 관여한다는 내용이다. 물고기가 육지 동물이 되려면 호흡기, 순환기, 생식기, 골격, 피부조직 등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단순한 유전자 하나의 비교를 통해 이 과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물 안에서 먼저 생기기 때문



에 물속의 생명체가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순서를 반드시 겪어야 한다. 그런데 물속 생명체가 물 밖으로 나와야 할 어떠한 동기와 이유가 없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전부 죽기 마련이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진화론자들의 신념 속에만 존재한다.

창조와 진화, 어느 가능성이 더 타당한가?

생명 기원에 관한 가능성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창조와 진화 이 두 가지로 수렴된다. 이 두 가능성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간단한 구조가 있다. 창조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개념이고, 진화는 사람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논리이다. 따라서 창조 가능성을 부인하면 생명체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하고 복잡하더라도 우연이라는 매우 약한 동기에 의존하는 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진화론의 출발점이고, 도착점이며, 한계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Nature> 논문에서 본 것처럼, 진화론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라는 신념 속에서 모든 데이터를 이 패러다임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그 실체이다. 따라서 진화론은 또 다른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창조론은 현재 관찰되는 사실과 훨씬 잘 부합된다. 창조론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현상과 사물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의 의미는 그 기원과 완전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의미, 결혼의 의미, 죄의 시작과 죽음의 의미, 일주일 주기의 생활패턴의 의미, 심지어 인간만이 웃을 입는 의미, 나아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의미는 기원을 설명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비로써 그 근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

창조론은 진화론 보다 설득력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창조와 진화를 종교와 과학의 대결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개념 중 하나

이다. 결국,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바라보는 두 시각의 충돌이다.

많은 기독교인이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은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본인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론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창세기>를 부정함으로써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창세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실제 성서의 모든 신학적 교리는 직간접적으로 <창세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진화론이 창조를 부정하는 순간 복음은 파괴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아래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진화 과정에서 생긴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게 되면, 규율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고, 결국 나의 욕구 충족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XX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면 여자, XY 염색체를 가지면 남성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나의 판단과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 생활할 수도, 번성할 수도 없는 동성 부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인종차별, 낙태, 수많은 인본주의 사상들, 허무주의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뿌리에 진화론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창조과학회와 온누리교회

1980년 8월 13~15일 3일 동안 한국대학생선교회(CCC)가 주최한 세계 복음화 대성회에서 ‘창조냐 진화냐’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3일 동안 4천여 명의 신학생, 대학생, 목회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창조론에 관한 강의를 들었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그 이후 창조를 진리로 믿는 과학자들이 모여면서 1981년 1월 31일 한국창조과학회가 설립되었다.故 김영길 교수(KAIST)가 초대 회장이었다. 이분은 수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온누리교회 1호 장로이자 초대 한동대학

교 총장을 지내셨다.

“창조는 진리이다!”를 외치는 수많은 창조과학세미나가 전국적으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다. 창조과학자들이 슬라이드 프로젝트와 슬라이드 원통과 천 스크린을 이고 지고 산을 넘기 시작했다. 창조과학 세미나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이나 달려갔다. 산골의 여름 성경 학교로, 군대부로, 신학교로,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화론의 허구성을 알리고, 창조가 진리임을 선포해 왔다. 온누리교회는 한국창조과학회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며, 동시에 동역자이다. 온누리교회 새신자 등록 과정 2주차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제로 한 강의가 교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창조신앙의 중요성과 진화론의 허구성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매우 소중한 사역이다. 한국창조과학회 역대 9명 회장 중에서 5명이 온누리교회 성도이고, 온누리교회 창조과학선교팀은 한국창조과학회와 긴밀하게 동역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꾸는 꿈

사람이 만든 방법론인 자연 과학으로 이성을 초월하는 창조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진화론이 과학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화론에 맞서서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영이 분명 필요하다.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과학자는 현재의 증거들을 연구하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일치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故 김영길 초대 회장은 연구(Research)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Research(연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시 찾아가는 작업이며, 이것이 과학자가 하는 일이다.”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은 눈물을 요구하는 사역이다. 진화론 과학진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창조과학회는 이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며 한국교회와 차세대, 선교지를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다. 목회자들은 신학으로 하나님을 변증하고, 한국창조과학회는 과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창조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를 꿈꾼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학술, 교육, 출판, 미디어, 탐사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밑듯 다가오는 AI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조과학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학회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느낀다. 이번 7월 13~14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봉헌하는 7월 비전헌금은 한국창조과학회의 사역과 이를 활용한 선교 사역을 후원한다. 여러분의 동참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진화론의 허구성이 알려지고, 창조 신앙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반드시 기억하자. 창조는 진리이며, 복음의 근원이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실현하는 ‘나눔장터’

팔고, 사고,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김동우 장로
(한강공동체,
나눔장터 담당장로)

나눔장터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실현하는 곳이다.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누는 사회선교 참여의 장(場)이기 때문이다.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

이 쓰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게 나눔이다. 사람들이 나누는 그 사랑 덕분에 힘든 이웃들이 기뻐하고,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 아름다운 나눔 중심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나눔장터’가 있다.

성도의 유무상통(有無相通)

온누리교회가 나눔장터를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그해 2월故 하용조 목사님을 모시고 나눔장터 창립예배를 드렸다. 나눔장터는 1988년 3월 15일 개장해서 36년 동안 매주 일요일 쉬지 않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 나눔 운동을 하고 있다.

나눔장터에서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행 2:44~47)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도 간에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 하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나눔장터 매장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1층 식당 옆에 있다. 매



나눔장터에서 성도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주 토요일 9시부터 12시,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버리기 아까운 의류, 책, 그릇 등 생활용품을 기증받아서 매장에 진열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저렴하게 구매한다. 판매금은 전액 사회선교본부로 귀속돼 선교사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후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선교사나 농어촌교회 목회자, 교회 주변 불우 이웃이나 소외 계층을 돕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눔장터의 도움으로 선교지에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힘든 선교사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농어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사역할 용기를 얻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또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활력소를

이 귀한 나눔장터 사역을 섬기는 봉사자 대

부분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들이다. 아직도 많은 성도가 이 사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지금까지 꾸준히 의류, 책, 그릇 등 생활용품을 기증해 주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정성껏 포장해 온 옷을 기증받을 때면 큰 감동이 밀려온다. 어떤 성도님은 아주 좋은 물건을 내놓는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서 더 많은 수익금을 얻어서 더 많이 돕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상표도 제거하지 않은 신제품을 기증하는 분도 있다. 안타까운 기증 사례도 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건들을 대량 정리하며 기증하는 경우다. 기증받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성도는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성도는 없다.”

이 말은 나눔장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

수도 있어서 한 번 방문하면 또다시 방문하게 된다. 물건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나눔장터를 찾은 성도들은 꼭 이렇게 말한다.

“마치 초대교회의 나눔 같아서 좋아요.”

나눔장터는 작은 나눔이 큰 사랑으로 번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다.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눔장터는 누군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파는 가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활력소이다. 누구든지 나눔장터에 가면 나누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나눔장터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담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나눔을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장터 매장이 눈에 잘 띄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전 만광장으로 올해 7월 이사할 예정이다. 성도님들이 나눔장터에 더 많은 생활용품을 기증해 주시면 좋겠다. 나눔장터 매장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기증한 물건들도 이웃사랑팀의 도움으로 매월 첫 주 일요일에 서빙고온누리교회로 온다. 이 사역이 확장되어서 모든 캠퍼스에서 나눔장터를 개장하는 것이 소망이고, 비전이다. 나눔장터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가 더욱 확장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눔 운동이 국가의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하며,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

나눔장터 봉사 시간
토요일: 9시~12시, 주일: 8시 30분~16시
문의: 010-3537-8006(이홍재 팀장)

사역칼럼

그래서 나눔장터가 축복의 통로

최현진 권사
(나눔장터 봉사자)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층에 있는 나눔장터는 작은 나눔이 큰 사랑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나눔장터의 섬김은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봉사의 의미를 넘어선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기 때문이다. 나눔장터 물품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아직 새것처럼 깨끗하고 쓸모 있는 물건들을 가까이 기증하고, 정성껏 손질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가져다주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 손길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음이 느껴진다. 나눔장터를 찾는 분들을 통해 받는 은혜도

크다. 늘 주위를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부지런히 섬기는 분,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알뜰하게 구매하는 분, 나눔장터 수익이 긍휼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거스름돈을 사양하는 분 등 여러 모양의 은혜가 늘 풍성하다. 나눔장터는 마치 숨겨진 보물창고같이 내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한번 찾은 분들은 단골이 된다. 꼭 맞는 물건을 찾는 분주한 손길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쁨의 미소로 이어진다. 나눔장터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사용하고 선물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욱 풍성해짐을 매주 경험하고 있다.

나눔장터를 섬기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 배우는 사랑과 기쁨도 크다. 섬길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섬김의 연수가 30년이 다 되어가는 봉사자가 여러분이다. 24년 동안 나눔장터를 지키는 이규연 권사님은 80세를 훌쩍 넘은 연세에도 여전한 활력과 섬김으로 본

이 되어주신다. 나눔장터에서 봉사하는 날이면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진다고 하신다. “집에 있는 것보다 나눔장터에 봉사하러 오는 것이 훨씬 좋아요. 나눔장터에 와서 성도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고 기뻐하면 내 일처럼 좋더라고요”라고 늘 말씀하신다. 10년째 섬김을 계속하고 있는 이종천 집사님은 건강의 어려움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을 섬길 수 있는 건강을 다시 허락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고백하신다. 나눔장터 시작 초기부터 섬기신 유기중 권사님은 새로 합류하는 봉사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 성도님이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세 자녀를 나눔장터에서 구매한 옷을 입히면서 키웠는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왔을 때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센스 있는 안목과 섬김 열정으로 필요한 물품을 잘 찾아주는 배태랑 봉사자 김연아 권사

님도 “나눔장터 섬김이 내 삶을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언제나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씀하시곤 한다.

정성껏 정리한 물건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져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섬기는 손길을 쉬지 않는다. 물건들이 잘 판매돼 매출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에 더 힘이 나고 감사하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거저 얻은 듯 기뻐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가 저절로 떠오른다. 나눔장터에서 가진 것을 나누는 기증자, 기증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판매하는 봉사자, 물품 구매자 모두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물로 거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나눔장터가 축복의 통로다.

맛있는 말씀 해설

“...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출 14:16)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기적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홍해와 같은 출애굽 사건일 것이다. 그 기적 사건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떠오르기도 한다.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혹은 ‘그렇게 기적 경험을 위해 간구한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일까?’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거나 성경의 기적을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성경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기적 이면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한다. 즉,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도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기적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온 세상에서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적이 모세 시대와 같은 방법으로만 나타날 필요는 없다. 각 시대와 문화에 알맞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홍해의 기적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홍해의 기적이 그리스도인의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동일한 구원의 기적이 빛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사건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한다.

바울은 “구약의 홍해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적과 초월적 사건

이 전도대상자에게 매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단, 주의 사항이 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기적의 수여자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다.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란 내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전 12:3). 반대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기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지 못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자기 우상숭배의 죄악이 심각했다. 그들은 이방인의 압제에서 자신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를 추구했지, 하나님의 관심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신앙을 고집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초월적인 기적은 좋은 것이지만, 기적을 경험한다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기적은 십자가이며,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골 2:3).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려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2~24).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구원을 위해 홍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기적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시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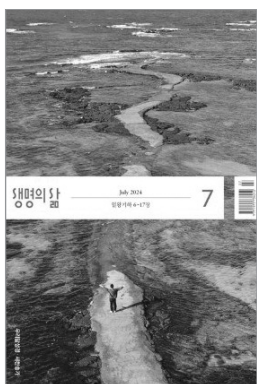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7월 15~21일

<열왕기하> 11:1~14:16



목상포인트 1:

왕의 부재로 다윗 왕조가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배

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상하자.

▶아달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자 유다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녀들을 결혼시켜 동맹을 맺었다. 아합 가문이 심판당하는 중에 유다 왕 아하시야와 그의 형제가 모두 죽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왕실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유다 왕으로 등극한다. 아달라의 폭정을 피해 여호세바(아하시야의 누이)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 숨긴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킨다. 아달라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백성은 바알 신당을 헐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인다. 요아스가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해진다.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

안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성전을 수리하는 등 열정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어 간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성전의 성물과 보물을 바쳐 아람과의 전쟁을 모면한다. 신복들이 반역해 요아스를 죽이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왕위를 잇는다.

목상포인트 2: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죄를 반복하면 더는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목상하자.

▶여호아하스의 악행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넘기신다. 여호아하스가 간구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역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한다.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일깨우던 엘리사가 죽음병에 걸리자 요아스가 찾아가 눈물을 흘린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쳐서 이길 기회를 주시는데, 무지하고 소심한 요아스가 아람을 멸할 기회를 놓친다.

목상포인트 3: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교만한 자는 돕지 않으신다. 처음 마음이 변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지 목상하자.

▶유다 왕 아마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히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아서 여전히 신당 제사가 이어진다. 아마사는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지만, 모세의 율법책에 따라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는다. 에돔을 정벌한 아마사는 마음이 교만해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건다. 그러나 아마사는 요아스에게 패해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성전의 보물과 사람들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다.

- 목상을 위한 가이드

▶악인이 득세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신실하게 일하신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흔들리는 왕조를 바로 세운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다. 나와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갱신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꾼과 재정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 일꾼과 재정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은 악한 여호아하스의 간구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나 또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자. ▶영적 분별력과 담대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자. 기회가 왔을 때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는 일이 있는지 살피고, 겸손히 말씀의 인도를 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동생을 위해서!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현재 동생은 홀로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 이후 고모 댁에서 함께 지내다가 지난해부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최근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면서 체중도 급격히 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생이 타지에서 지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동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인간관계에서 상처 받은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예수님이 지쳐 있는 동생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동생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회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멘토가 멘티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세 가지 방법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학청년공동체 멘토로 섬긴 지 9년째다. 지나간 얼굴들이 스쳐 가고, 함께 나누던 대화들이 기억난다. 청년의 시기는 특히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때나 받아주신다. 하지만 청년의 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즉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매우 힘들고 괴롭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와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 세 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째, ‘은사 발견’, 둘째, ‘교회 내에서 롤모델 찾기’, 셋째,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요즘 세상은 MBTI나 성격진단 테스트와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직업은 물론 배우자까지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이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기를 권면한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하거나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에 열정과 기쁨을 느끼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의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완벽한 롤모델을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장점과 약한 점까지 모두 보면서 하나님이 롤모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로 듣는 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런저런 것들을 자주 묻는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들이면 그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지혜와 위로를 얻는다. 요즘 나는 죄와 두려움 너머의 삶, 즉 생명과 자유함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한다. 때로는 세밀한 목소리로, 때로는 강한 꾸짖음이 울린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에서 롤모델을 찾으며,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선행적

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자유롭게 조합하고, 담대하게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창조의 성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연규선 멘토
(Pole2대학부)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의 장점과 재능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시선을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돌리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두 번째 방법인 ‘교회 내에서 롤모델 찾기’와 연결된다. 롤모델은 교회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고, 공동체 목회자나 멘토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기도 하고, 리더십 그룹이나 사역자 모임 같은 준거 집단(reference group)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분과의 대화이다. <시편> 139편 23-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록돼 있다. 길을 걷다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출퇴근할 때, 산책할 때 등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대학청년공동체 멘티들을 만날 때 주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거친 말의 특징과 경청

남녀가 연애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마 데이트할 때일 것이다. 데이트하면서 연인은 쉴 새 없이 대화한다.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데이트한다고 볼 수 있다. 연인은 각자 오랫동안 쌓아뒀던 이야기를 서로에게 털어놓는다. 집중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하게 반응하며, 공감해 준다. 가능한 속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연인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는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발견되고, 자신 안에서 상대가 발견되는 경험을 할 만큼 따뜻하고 행복한 경험이다. 그런데 이 즐거웠던 대화가 결혼 이후 식기도 한다. 관계가 식는 만큼 언어도 거칠어진다.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유익하지 않다.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부관계는 연인 관계와 비교했을 때 친밀감과 애착 경험의 유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거친 언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상대를 향해 비난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말은 하지 않고, 배우자가 잘못된 점을 집요하고, 직접적으로 꼬집어 책망하고 비난한다. 인내의 시간이 급격히 짧아진다. 사랑이 충만한 관계에서는 배우자를 충분히 인내하고 용납한다. 끝없이 기다려 준다는 마음의 태도가 드러난다. 하지만 관계가 경직되기 시작하면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는다. 비난은 배우자를 향한 거친 말이자 폭력적인 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관계에서는 폭력적인 태도나 언

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난은 거칠고 폭력적인 말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비난이 익숙한 패턴이 되어 있다면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습관을 들이기도 어렵지만, 이미 길든 습관을 고쳐나가는 과정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비난 대신 존중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비난을 자주 하면 상대방을 미움이 라는 틀에 가둬버리게 된다. 반면 배우자에 대해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미움이 아닌 사랑과 존귀한 태도로 대할 수 있다. 비난의 거친 말은 자신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거친 말은 상대를 향해 비아냥거림으로 표현된다. 비난의 말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향한 존중 없는 마음으로 교묘하게 배우자를 깎아내린다. 비아냥거림은 상대에 대한 불만족과 그 불만족으로 인한 조롱이 담겨 있다. 비난이 직접적인 상대를 향한 공격이라면, 비아냥은 의도가 숨겨진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비아냥거리는 말도 자신과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존중하는 태도와 매너를 지키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비난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아냥거리며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힘들더라도 진실한 태도로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아냥거림은 때로 기분 나쁜 농담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가벼운 농담이나 유머는 당연

히 긴장된 관계를 풀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유머나 농담을 잘하는 것도 부부관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모든 농담이 관계에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 부적절한 농담을 사용해서 기분 상할 때도 있다. 어떤 농담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내용을 소재로 삼기도 한다. 그렇기에 농담과 유머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담의 소재가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아냥거리는 농담과 유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거친 말은 대화 중간에 말을 끊어 버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형태로 나타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 버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당신과 대화하지 않겠어”, “당신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당신은 정말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등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거칠고 파괴적인 말은 예의가 없을뿐더러 폭력적인 대화의 형태다.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청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 있다. 집중해서 듣겠다는 자세로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상대방의 대화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화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배우자가 한두 마디만 꺼내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뻔하게 보이기도 한다. “또 그 말 하려고 하는군”, “이제 좀 그만하지 또 시작이야?”, “

결론이 뻔한 이야기를 무한 반복으로 들어서 뭐하냐” 등의 예견된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논쟁이 시작되려는 부부의 대화에서도 경청이 쉽지 않다. 화나고 불편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거리낌 없이 끊어 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말만 쏟아놓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인내와 경청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모든 판단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거칠고 폭력적인 말은 괴롭히는 말, 욕설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배우자가 유독 싫어하는 말로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괴롭힘이며 폭력이다.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거칠고 폭력적인 말이다. 싫다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저주가 담긴 욕을 하는 것도 폭력적인 말이다. 어떤 상황이든 배우자를 향해서 욕설과 거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예의 있게 하는 말은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을 세워가지만,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거친 언어와 폭력적인 말은 친밀감에 상처를 내고 균열을 만든다. 부부는 거친 말을 버리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CGN ‘어메이징 그레이스’ 100회 특집

CGN 대표 간증 프로그램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 윤유선, 이세준)가 100회를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특집 방송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에 배우 겸 방송인 신애라 집사가 출연한다.

신애라 집사는 방송에서 에세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의 출간 과정부터 인세 전액 기부 사연, 위탁 보육 시설 아이들에 대한 소신을 풀어낸다. 기록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2022년 8월 첫 방송을 했다. 지금까지 선교사와 목회자, 크리스천 연예인과 문화인



CGN ‘어메이징 그레이스’ 100회 특집 스틸 사진.

등 113명이 출연해 하나님의 은혜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와 감동을 고백했다.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 모집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7월 27일까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father.or.kr)나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와 가정 회복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10-2657-1875

본부 133기 두란노어머니학교 모집

9월 4일까지 선착순 마감

본부 133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4일까지 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 또는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60명이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2-2182-9114

“재정문제 도와드립니다”

부채탈출119 신청자 상시 모집

부채탈출119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부채탈출119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성도와 이웃들을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부채상담사역이다. 재정 상담을 원하는 성도나 이웃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james332023@gmail.com)로 보내면 된다.

가계재정상담신청서에는 신청자 또는 추천자의 개인 정보, 상담 필요

분야, 부채 발생 원인 등을 작성하면 된다. 부채상담은 대면 및 온라인 상담으로 2~3회 진행되고, 경제정의팀 소속 상담위원과 연결된다.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보장 및 보호된다.

김희망 형제(가명)는 “부채탈출119에서 전문적인 재정 상담을 받고 빚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희망을 얻고, 삶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문의: 010-7636-3755

/ 홍하영 기자

청춘클래스 9기 참가자 모집

8월 31일, 9월 7일 여의도 정곡빌딩 4층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춘클래스 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춘클래스는 8월 31일(토)과 9월 7일(토) 오후 1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청춘클래스 9기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4일(일)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청춘클래스 9기에서는 개그맨 조

래훈이 사회를 보고,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가 ‘크리스천 연애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복유 전도사 간증 및 콘서트도 열린다.

청춘클래스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돕기 위해 지난 2021년 시작했다. 현재까지 청춘클래스를 통해 17쌍이 결혼했고, 자녀 5명을 출생했다.

문의: 010-5628-8872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

7월 29일부터 명지대 60주년 기념 채플관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가 개강한다. 7월 29일(월)부터 8월 3일(토)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60주년 기념 채플관에서 진행된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어린이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가 열린다. 참가신청은 경배와찬양 홈페이지(allenation.or

g)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7000school@gmail.com)로 보내면 된다.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왕상 14:22, 왕상 15:30)를 주제로 하스데반 선교사, 경배와찬양 국제사역팀, 하신주 선교사가 인도한다.

문의: 02-796-9700

CGN ‘메시지 트립’ 9월부터 출발!

그리스, 튀르키예 등 바울의 전도 여정 따라가기

CGN에서 바울 및 성지 전문가와 함께 사도 바울이 걸었던 전도 여정을 따라가는 성지순례여행 ‘메시지 트립’ 참가자를 모집한다.

1차 여행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다. 밀레도, 앳달리아 코스로 이영철 목사(국제사도바울센터원장)가 성지를 소개하고 강의한다. 참가비는 353만 원이다. 2차 여행부터는 밀레도, 앳달리아 코스를 간다. 2차 여행은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김동문 선교사(중근동 눈으로 읽는 성경) 저자가 인도한다. 3차

여행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익상 목사(이스라엘 따라 걷기) 저자가 인도한다. 참가비는 373만 원이다. CGN ‘메시지 트립’ 참가비에는 가이드 비용과 튀르키예 교통카드투어,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인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특전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천지투어 홈페이지(bibletour.c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03-7100

(천지투어, 평일만 운영)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2024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이하 ‘2024 어!벤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9일(월) 오후 2시까지 모집 및 서류 접수한다.

‘2024 어!벤처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비영리법인 가능)다. 팀의 핵심멤버 1명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웹진(avenures.imweb.me)에서 하면 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는 2015

년 CCF(Christian CEO Forum)와 온누리교회가 함께 개최한 ‘Loving U’(온누리교회 청년 창업가를 위한 벤처 대화)가 그 모태다. 2016년부터 온누리교회, CCF, FWIA(Faith & Work Institute ASIA), The Wells Investment, MYSC 주최로 모든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로 확장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문의: venture4world@gmail.com

/ 홍하영 기자

그림행진-세상속으로!

KCAF 2024, 7월 15일까지 마루아트센터

제1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KCAF 2024, Korean Christian Art Feast)가 오는 7월 15일(월)까지 마루아트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 특별관 전관과 신관 1관에서 ‘그림행진-세상 속으로(사도행전)’를 주제로 열린다.

KCAF 2024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본문인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작업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4차 로잔대회를 후원

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다.

KCAF는 2012년 첫 전시회를 했다. 문화 선교에 뜻이 있는 한국 교회와 미술인선교회가 연합해 매년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전시회는 KCAF 2024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준영 권사(온누리아트비전 팀장))가 주최하고, 임마누엘 기독교미술선교회 주관한다.

/ 홍하영 기자

7월 화요성령집회 ‘Be Bold’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7월 화요성령집회가 ‘Be Bold’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7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6일 최

성민 목사 ‘낮선 길로 인도하는 명령 앞에’(수 1:1~9), 23일 최성민 목사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앞에’(갈 2:11~21), 30일 이서진 목사 ‘끝을 알 수 없는 여정 앞에’(출 16:1~10)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양재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서혜영 권사(과천의왕공동체)

“성경적 삶 없이는
성경적 선교도 없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공동체 사역과 스콜 방향이 모두 전도와 선교에 집중되고 있음을 느낀다. 평소 예배와 제자 양육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사역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했다.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다.

지난해 러브소나타 ‘미야기’에 처음 참가했고, 몇 달 뒤 일본 오키나와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준비시키셨다.

양재 와이미션 과정에 등록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공동체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이끄셨다.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필수과정 중에 와이미션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 불편했다. 그동안 자녀를 키우고, 일해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 토요일 오후 시간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때를 따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결석 없이 완주했다.

한국 선교 역사 강의 중에 토마스 선교사를 시작으로 많은 선교사가 조선에 오게 된 배경을 알게 되었다. 또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선교적 삶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영성을 소유하고, 조금 더 낮은 삶을 사는 것이다. 존재론적 선교에 머물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헌신하며 전도와 선교 현장에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번에 여성사역에서 주관하는 권사스쿨에서 전도지 <최고의 행복>으로 5분 전도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선교적 영성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다. 매일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성경적 삶 없이는 성경적 선교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성경적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도전받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임을 알기에 더욱 힘써 기도에 헌신하고, 여름 아웃리치에 기대와 소망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이명선 순장(마포공동체)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순장

순장학교를 시작한 동기는 믿음의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순장학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과제가 많았다. 하지만 한주 한주 지나는 동안 성령 충만해졌다. 또 예비 순장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은혜로웠다.

특별히 순장학교 아웃리치가 기억난다. 노숙자 사역을 위해 서울역 인근에 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을 도와드렸다. 예배드릴 때 목사님의 “예수님을 친구삼아 늘 함께 하자”는 설교가 은혜롭게 다가왔다.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해 간식을 전달했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평소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갈 때 그분들이 무서웠다. 그런데 순장님들과 함께하니깐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여셔서 그날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순장님들과 함께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가졌던 나의 편견을 회개했다. 그분들도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故 하용조 목사님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의 성령수련회도 특별했다. 늘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신앙의 연약함 때문인지 부족함을 채울 수 없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라며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찬양과 기도 중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목사님의 방언 기도가 시작될 때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나왔다. 그동안 죄지은 것들, 우상을 섬긴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했다. 목사님과 조장님의 일대일 안수기도 시간에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정말 가슴 후련하고 은혜로운 성령수련회였다.

이 마음을 고이 간직해서 내 신앙생활의 소망인 선교의 열매가 맺히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한다. 더욱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순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부천 국내 의료선교팀 간증



/ 김성균 장로(부천온누리교회)

전도와 선교,
그 기쁨의 발걸음

아침 일찍 충남 서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지난해 다녀온 국내 아웃리치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의료선교팀으로 다시 발걸음을 땀다. 부천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은 국내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지역교회와 동역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미용팀, 효도사진팀, 찬양예배팀, 의료팀, 안내팀, 전도팀, 물리치료팀, 네일아트팀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전도사역팀과 함께 방문 전도도 했다.

지역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분명하다. 이동 진료 특성상 투약, 시술 등 진료에 제한이 있어 주로는 더 자세하게 상담 위주의 진료를 한다. 나는 진료 후에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신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아멘’을 따라 하시기도 한다. 대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팀이 다가가 전도한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이 계시면 모두 박수로 환호한다. 전도팀은 오랫동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작은 선물을 드리며 기도해 드린다. 병상에 계신 어르신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어르신이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는데, 이를 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들과 청년들도 사역에 동참했다. 내과 진료를 하시는 장로님 둘째 딸이 초등학교 때 의료선교를 따라와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이제는 어엿한 간호사가 되어 아빠 옆에서 진료를 돕고 있었다. 의료선교의 또 하나의 멋진 열매인 것 같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 만난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벅찬 감격과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매번 목사님의 동일한 멘트 “내년에 꼭 다시 와주세요”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이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으로 섬긴 것인데, 항상 받는 게 더 많네요. 귀한 선물 가지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전도와 선교, 그 기쁨의 발걸음에 한 번도 안 가본 분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하신 분은 없을 것이다. 이 기쁨의 발걸음에 동행하지 않겠는가?

새가족 간증



/ 이선희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

지난 2월, 교회에 가려는데 최근 이사를 해서 온누리교회가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초 온라인으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했기에 오늘은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동차 시동을 켜는데 ‘오늘 온누리교회에 등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나는 일한다는 핑계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10여 년을 살았다. 어느새 기쁨도, 소망도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조차 고갈되었다. 내 모습이 마치 성경 속 위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지꼴의 탕자같았다.

남편과 두 딸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했다. 청년 시절 온누리교회 찬양 예배를 단체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30대 초반에는 교회에서 온누리교회의 일대일 제자양육을 신청해서 양육자와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기도 했다. 힘들 때마다 내 곁에는 온누리교회가 있었다. 온누리교회 주일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등록을 했다. 담당 권사님이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니깐 홀로 순배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권사님

이 “부부 순으로 가면 좋을텐데” 하시며 아쉬워하셨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내가 가는 순이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가셨거나 신앙 생활하지 않는 남편을 둔 성도들의 순”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남편이 “당신 혼자 교회 보내서 안 쓰러웠는데 나도 같이 온누리교회에 출석할 게. 그러면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자발적으로 교회 가기로 했다.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졌다.

남편은 그 말을 하고 4주 뒤에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했다. 큰딸 지은이도 주일에 배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었다. 나는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 나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한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		●	
이재훈 위임목사		● 양지		743 South Grand View st.		● 앵커리지	
● 서빙고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Los Angeles, CA 90067, USA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샌디에이고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영종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 밴쿠버	
● 양재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산타모니카		19711 86th Ave.	
햇불선교센터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Langley, BC V2Y 1Z5 Canada	
● 부천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워십: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 기도처		● 팜		● 오세아니아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태안온누리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시드니	
● 수원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 미동부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보스턴		● 오글랜드	
● 대전		서산온누리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시카고		New Zealand	
3-6층		● 불화온누리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 홍콩	
● 남양주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문영택 목사 852-2506-0089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뉴욕IN2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새빌딩 2-5층		● 진새골온누리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 일본	
● 평택		주수일 정로 (031)-767-2776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동경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 뉴저지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해외 온누리교회 ●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 인천		● 미서부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Tokyo, Japan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앨버틴		● 미북부		● 오사카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포틀랜드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 강릉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이준호 목사 (02) 475-9686		● 로스앤젤레스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Chuoku Osakasi Japan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나비빌딩 11, 12층							

섬기는 분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운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화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예수사랑부 드러머 교사 모임 시간: 주일 11:30~12:30 한동홀 문의: 김영선(010-3474-763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임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 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을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을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을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을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을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아웃리치 의료진 모임 일시: 8월 9일(금)~13일(화) 장소: 네팔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브릿지33+ 예배팀 모임 분야: 메인 건반 시래바: 협의 가능 문의: 김혜련 예배팀장(010-9699- 5731) NGO 더멋진세상 모로코 PM 채용 모집: 1명 기간: 7월 25일부터 25년 6월까지 업무: 취약계층의 1차 의료접근성 증진 을 위한 이동진료 사업 등 자격: 기본 영어 의사소통능력,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불어 가능자(우대 사항)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	--	--	--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곡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곡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곡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곡홀 / 유치부 9:00 2층 예곡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곡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곡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곡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을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이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곡(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바울로부터 [메시지 트립]

CGN 선교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의 감동을 그대로!
바울·성지 전문가와 함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트립일정		강사	금액
1차	9/30 - 10/9 (10일)	이영철 목사 국제사도바울센터 원장	353만 원
2차	10/14 - 10/24 (11일)	김동문 선교사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저자	373만 원
3차	11/18 - 11/28 (11일)	이익상 목사 <이스라엘 따라 걷기> 저자	

✈ 그리스 경로

아테네(아덴) - 고린도 - 겐그리아 - 베리아(베뢰아) - 데살로니가 - 빌립보 - 까발라(네압볼리)

✈ 튀르키예 경로

에베소 - 밀레도 - 파묵칼레(히에라폴리) - 안탈라(앗달리아) - 비시디아 안디옥 - 꼬냐(이코니온) - 루스드라 - 이스탄불

- * 풍당에서 다큐 <바울로부터>를 꼭 시청해주세요!
- * 모든 참가자들에게 <바울로부터> 도서와 워크북을 지급합니다.
- * 상기 금액은 가이드·기사 팁, 튀르키예 파묵칼레 카트 투어,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인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관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0만원 상당)

주최 **CGN** 주관 천지투어 문의 02) 703-7100 (천지투어)

